

대아(大義)에 살자

우리는 크게 살자.
 사람은 목표에 따라 행동이 다르다.
 자기만을 위하는 자, 그 행동이 작을 것이요.
 나라나 사회를 위하는 자, 그 행동이 클 것이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 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승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살다보면 22
 괜찮아, 다 괜찮아
 이육경



향유 28
 2021년(신축년)
 서령 정사



지혜의 뜨락 42
 부처님 이야기 속
 교훈
 방귀희

04 특별기고	새해불공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요? 법수연 전수
10 불교이야기	혜학이란 무엇인가? 화령 정사
14 마중물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따뜻한 하루
16 겨울이야기	말하지 않고서 행하지 말라 법경 정사
22 살다보면	괜찮아, 다 괜찮아 이육경
28 향유	2021년(신축년) 서령 정사
32 산책	1월이 오면 김대곤
34 아름다운 세상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마음 습관 모원화 전수
38 마음의 등불	새해 다짐 조익
42 지혜의 뜨락	부처님 이야기 속 교훈 방귀희
46 삼선성취	아무 글 남혜 정사
50 씨앗 한 알	불성, 마음, 본래면목은 있으나 없다 법상 스님
54 카일라스	수미산(須彌山)은 우주의 중심축 3 김규현
58 차항기	티타임의 유래와 의미 김정애
62 식물이야기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태용
66 결망에 담긴 이야기	믿는 것은 믿져야 본전인 것 법일 정사
68 독자기고	자비를 받고 살았네요 여순애
70 요리TALK! 정보TALK!	검은색 음식 김조은
74 뜻 바꾸기	성취법(成취法) 김재동
76 컬러링 만다라세상	독자숨씨



자신을 밝히는 세상을 밝히는 신축년 새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가정에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복덕과 지혜가 가득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류의 고통은
그 어느 때 보다 심했습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바이러스의 반복과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부처님 말씀에 기대어
자신과 세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불교총지종은 창종 50년을 맞이합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공을
강조하시면서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을
설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생활, 그 자체가 '불공'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불자들은 더욱 철저히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축년은 흰 소의 해입니다.

소는 불교화도 깊은 인연이 있는 동물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자로 계실 때 '최상의 소'라는 뜻의 고타마라는
성(姓)씨였으며, 마음 닦는 과정을 소 찾는 과정으로 묘사한
심우도는 청정한 성품을 흰 소에 비유하였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품인 흰 소를 찾기 위해 정진합시다.
부처님 세계에 당당한 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합장

새해불공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요?

법수연 전수
밀인사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 불공함에 있고
 칠일 동안 행복함은 자성 불공함에 있고
 한 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 불공함에 있고
 일 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 불공함에 있다.

- <종조법설집 p110>

7일 고행, 1년 행복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신축년*** 새해 불공기간입니다. 모든 교도들의 소원은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해오던 불공이건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입교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실천하면 좋을 듯합니다. 7일을 고행하여 1년이 행복하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요?

우선순위를 정하여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서원으로 용맹정진하면 좋겠지요. 곡식을 심더라도 한곳에 여러 종류를 심으면 각각 요구하는 환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듯이 우리들의 서원하는 바도 종류(경제해탈, 자녀결혼, 시험, 병고...)에 따라 실천(정진, 참회, 회사)해야 할 부분 또한 다릅니다.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면 우선 목적지를 정한 다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듯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를 목적지로 정하여 풀어나갈 여러 가지 방법은 7일간의 당채 법문을 나침판으로 삼는다면 실타래 풀리듯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새해불공 7일간 일상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 기는 것이나 꿈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경우)이라도 소상히 메모해 뒀다가 현실 생활에 적용시키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불공기간을 고지하여 불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안부전화 및 방문자제)를 구하면 이에 응해 주는 가족도 불공하는데 편안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복 짓는 결과가 됩니다. 이 기간이라도 묵언정진을 하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7일이란 기간 동안 묵언한 공덕으로 1년간은 말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미리 예약이 되어 있거나 복용하던 약은 불가피하겠으나 불공 중에는 몸의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병원출입과 약 복용을 삼가하고 부처님법약에 의지 한다면 1년 동안 병원과 약을 조금이라도 멀리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은 고기는 당연하고 맵고 자극적인 것은 피하면 좋겠지요. 고기를 피함은 불살생을 실천함이에요. 매운 것을 섭취하면 열이 나기 때문에 열뇌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자극적인 맛은 비록 순간적일지라도 평정심을 잃게 되지요.

매년 대부분 사원에서 불공기간중은 점심공양을 해 왔으나 현재로서는 예단 할 수 없지만, 다행히 종전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식탐을 제어하고 빗지지 않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회사나 공양비를 보시하는 것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질(금전)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큰돈 나가고 들어옴을 불공기간에 자제함으로써 1년간 돈에 대해 마음 쓸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시장 볼 것도 1주일 치를 미리 봐 놓으면 좋겠지요. 시장을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것저것 보다 보면 탐나는 것도 때론 나쁜 것 보고 저울질도 하며 번뇌가 생기게 되니까요. 특히 부동산 매매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만이 기회일 것 같지만 번뇌 없이 불공을 다 마치고 성사 되는 것이 여법한 것입니다. 지난 해 보다는 질량 한 손가락이라도 동전 한 닢이라도 더 실천하여서 풍요로운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근기에 맞게 활용하시되 자신이 일주일간 꼭! 지킬 수 있는 계행을 스스로 정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조님께서 “우리 총지종법은 고해중생의 안정체가 되고 중생교화에는 무진등이 되며 세계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총지종 교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원의 정사, 전수님의 인연과보에 입각한 진솔한 대화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바로 고해 중생에 안정체가 되지요.